렉서스코리아 전동화 모델 2종 공식 출시

첫 전용 전기차 '디 올 뉴 일렉트릭 RZ'

1회 충전으로 377㎞ 주행
수프림·럭셔리 등 2개 트림
'오토 케어 리스'로만 판매

하이브리드 '뉴 제너레이션 RX'

RX 350h 등 3가지 파워트레인
9740만원부터 1억1560만원
'특별 변동 금리형 할부' 선보여

렉서스코리아가 렉서스 첫 전용 전기차 '디 올 뉴 일렉트릭 RZ'와 '뉴 제너레이션 RX' 등 전동화 모델 2종을 공식 출시했다.

◇디 올 뉴 일렉트릭 RZ=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RZ450e는 렉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BEV)로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과 주행 성능을 구현한 렉서스 브랜드 변화의 출발점이다.

더 올 뉴 일렉트릭 렉서스 RZ 450e'는 렉서스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를 적용했다. 전기차에 최적화된 패키징과 높은 차체 강성을 갖춰 렉서스만의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운 디자인 방향인 렉서스 '스핀들 보디'(Spindle Body)를 바탕으로 공기 역학적 디자인과 역동적인 비율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테리어는 '타즈나'(Tazuna) 콘셉트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해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렉서스 커넥트가 탑재된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뛰어난 개방감을 자랑하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및 렉서스 최초의 래디언트 히터가 적용되는 등 운전자 편의성도 높였다.

RZ 450e에는 프런트 및 리어에 새로 개발된 이액슬(eAxle)이 적용된 다이렉트4(DIRECT4)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BEV 전용 71.4㎾h의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와 렉서스 최초로 실리콘 카바이드(SiC) 인버터를 채택해 1회 충전으로 최대 377㎞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시스템 총 출력 312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안전한 주행을 위한 예방 안전시스템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exus Safety System +)가 탑재됐다.

RZ 450e는 수프림과 럭셔리 등 2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픽업 및 차량 유지 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 '오토 케어 리스'(Auto Care Lease)로만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 고객에는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LEXUS ELECTRIFIED) 멤버십'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충전포인트를 특별 제공한다.

'디 올 뉴 일렉트릭 RZ'는 수프림과 럭셔리 총 2개의 그레이드로 출시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RZ 450e 수프림 8480만원, RZ 450e 럭셔리 9250만원이다.

◇뉴 제너레이션 RX=럭셔리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한 RX는 지난 2006년 RX 400h를 출시하며 전동화 차량의 선구자로서 뛰어난 주행 성능과 환경 성능을 추구해왔다. 렉서스의 핵심 모델로서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다.

이번에 출시한 5세대 뉴 제너레이션 RX는 전동화 비전인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3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450h+, 퍼포먼스를 강화한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모델 RX 500h F SPORT Performance 등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된다.

'디 올 뉴 일렉트릭 RZ(오른쪽)'와 '뉴 제너레이션 RX'. 〈렉서스코리아 제공〉

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RX는 새로운 심리스 타입의 스핀들 그릴과 일체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새로운 리어 로고 디자인을 적용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타즈나 콘셉트가 반영된 실내는 전자식 버튼 도어 핸들인 '이래치(e-Latch)' 도어와 렉서스 커넥트가 탑재된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등 향상된 편의사양과 함께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걸맞은 안락하면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RX 350h는 2.5ℓ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고효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시스템 총 출력 249마력을 발휘하면서도 13.6㎞/ℓ의 우수한 복합 연비를 제공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450h+는 2.5ℓ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과 18.1㎾h의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시스템 총 출력 309마력의 퍼포먼스, 1회 충전 시 전기모드로만 최대 약 56㎞(복합기준) 주행이 가능하며 복합연비는 14.0㎞/ℓ(휘발유)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RX 500h F SPORT Performance 모델은 2.4ℓ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조합과 새로운 바이폴라 니켈 메탈 배터리가 탑재되어 시스템 총 출력 371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선보인다. 예방 안전사양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도 기본 탑재됐다.

'뉴 제너레이션 RX'는 최근 고금리로 할부 이자 부담이 높은 고객을 위해 CD금리를 반영한 '특별 변동 금리형 할부'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RX 450h+ 구매 고객에는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 멤버십'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충전포인트를 특별 제공한다.

'뉴 제너레이션 RX'의 권장소비자가격은 RX 350h 럭셔리(Luxury) 9740만원, RX 450h+ 1억850만원, RX 500h F SPORT Performance 1억1560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자연에서 얻은 영감, 미래차 디자인하다

현대차·기아 프로젝트 공개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협업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세계적인 예술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이하 RISD)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을 주제로 공동연구한 프로젝트를 최근 공개했다. 〈사진〉

이번 프로젝트는 RISD 산하 '네이처랩'(Nature Lab)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네이처랩은 1937년 설립 이후 자연 생명체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동식물, 곤충 등의 생물표본과 최첨단 연구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차·기아는 자연을 활용한 미래 디자인 콘셉트 발굴을 위해 RISD와 함께 202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이며 매번 새로운 주제와 결과물로 업계에 신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4번째를 맞은 이번 공동연구는 '함께 공존하는 미래 삶'(collaborative future living)을 주제로 자연 및 생물체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협업에선 미래 모빌리티(2020년), 미래형 도시(2021년), 지속가능한 미래(2022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RISD 교수진 2명이 이끌고 건축, 가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전공 RISD 학생 24명이 연구자로 참여했으며, 현대차·기아 디자이너들은 연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연구개발 부문 엔지니어들도 함께 참여해 기술 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며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공동연구는 ▲봄학기 코스(Spring Course) ▲여름학기 연구(Summer Research) ▲심화협업과정(HMG Research Fellow)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봄학기 코스 종료 후 여름학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협업 분야는 건축(Architecture) 디자인 부문 '위기 속에서의 공존'(Coexistence in Crisis)과 가구(Furniture) 디자인 부문 '미래 공간과 자율주행차'(Future Spaces and Autonomous Vehicles)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봄학기 코스 기간에 건축 디자인 연구팀은 ▲갈대류의 통기 구조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결합해 효율적으로 열을 분배하는 건축물 구상 ▲개구리 피부 형태를 모방해 수분 흡수력을 높인 벽돌 재질 등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가구 디자인 연구팀은 ▲솔방울 구조를 활용한 습도·공기 반응형 인테리어 패널 ▲거미줄을 모방한 물 여과 시스템 ▲집게벌레 날개 방식의 접이식 직물 구조 등 미래 이동 및 생활 공간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기아글로벌디자인센터장 카림 하비브 부사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 내는 복잡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자연의 지혜로부터 미래를 바꿀 디자인 콘셉트를 발굴하고자 한다"면서 "자연 속 영감이 더 나은 미래 이동과 삶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전세계 서비스 상담원 경진대회 열어

기아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 정비 교육센터에서 '2023 전세계 서비스 상담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아 전세계 서비스 상담원 경진대회'는 최우수 서비스 상담원 발굴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2011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회로 코로나 이후 재개되면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기아 최우수 서비스 상담원들이 경쟁하는 '기아 전세계 서비스 상담원 경진대회'는 42개 국가에서 진행된 예선대회에서 입상한 45명의 서비스 상담원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한국에서 진행된 본선 대회는 서비스 상담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고객 응대 프로세스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고객 응대 사례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고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진행됐다.

기아는 본선대회 평가 결과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우수상(2명) 등 총 8명의 서비스 상담원 입상자를 선정하고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득점으로 금상을 수상한 칠레의 예니 포블레테 부스타만테(Yenny Poblete Bustamante)씨는 "세계 우수한 서비스 상담원이 한자리에 모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기아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브랜드를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은 본선 대회 참가 외에도 인천플래그십스토어, 복합 브랜드 체험공간 기아360(Kia 360), 오토랜드 화성 등 서비스, 브랜드, 생산 등을 체험했다.

기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경진대회로 단순히 서비스 상담원 간의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닌 상담원 모두에게 기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기아의 역량 있는 우수 서비스 상담원들이 현업에 돌아가서도 고객 최접점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코리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6년 연속 수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사장 토마스 클라인)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Korea Consumer Awards)에서 6년 연속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브랜드 품질, 서비스, 가격 등 전반에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보이며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고객 서비스 활동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지난 2018년 첫 수상 이후 매해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부문을 수상하고 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기차 고객 증가에 따라 전문 서비스 확대에 나서며 현재 77개 모든 네트워크에서 전기차 기본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구축했으며, 이 중 59개 센터는 전기차 전용 특수 설비, 고속 충전 시설, 고전압 배터리 전문 정비사 등을 갖춰 전기차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영상으로 차량의 점검 현황을 확인하는 '씨잇나우'(CitNOW)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난 4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 '컬렉션 샵'을 오픈하며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카, 캠핑 용품, 테일러메이드 협업 상품 등 총 150여 종의 제품 판매를 시작하는 등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강화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내 진출 20주년을 맞아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20주년 고객 감사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TV, 태블릿 PC, 블루투스 스피커 등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전국 77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현대 N 페스티벌'에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는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단일 차종 경주) 레이스 대회로인 '현대 N 페스티벌(Hyundai N Festival)'에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올해 현대 N 페스티벌은 다양한 클래스가 운영되는데 이 중 금호타이어는 현대 N 페스티벌의 최상위 프로 클래스인 N1 클래스에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

N1 클래스는 서킷 레이스만을 위해 개조된 고성능 N의 원메이크 레이스로 레이스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들은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레이싱 타이어인 '엑스타(ECSTA) S700'과 빗길에서도 견고한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하는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W700, W701'을 장착한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2024시즌까지 레이싱 타이어를 전량 유상 공급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